

안전보건공단 '추락·충돌·질식 3대 악성사고' 줄이기 총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중앙)이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현장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포항 제철공장 질식사고, 부산 해운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피밀리아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선진국보다 재해율은 낮은 데 반해 사고 발생 시 사망 비율은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산재사고를 감추려고 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사망사고가 잦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악성사고(추락, 충돌, 질식)와 지자체 위험작업 및 노후 화학설비 사고예방을 위한 6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공사 규모가 크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에 위험등급제를 도입하고 재해예방 계획서 이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을 한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체계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 보유 여부, 지게차 작업 시 전후방 시야 확보 및 안전띠 착용 등을 점검하고 교육·재정 지원을 한다.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보다 40배 이상 높은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공공하수처리시설, 양돈농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는 급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대여해 준다. 지자체 4대 위험작업(공공근로, 생활폐기물, 관로 공사,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설태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설비의 노후 연수에 따라 차등화된 기술지원과 설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가 안전을 차별받지 않도록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실천하고 안전의식 전환을 유도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고예방 3대 원칙 꼭 지켜주세요.

지게차, **안전**이 먼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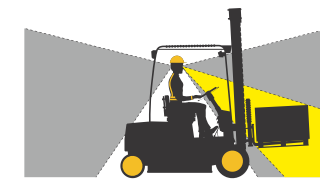


지게차사고예방 3대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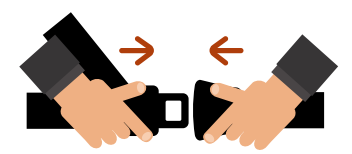
자격자 운전

운전은 자격을 가진 지정된 자가!



시야 확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후진 시 반드시 후방 확인!



안전띠 착용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띠 착용!